

고마움 느끼나 바람은 끝없어



임상간호원의 입장에서

우석병원 간호과장 이 숙 자

포근하게 몸 전체를 감싸고 빠알간 눈망울을 반짝이며 조용히, 그러나 나름대로 생각하며 열심히 뛰어 보자던 토끼해도 벌써 송년의 애기로서 울러 보내야 하는 지금이고 보니 역시 세월의 흐름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긴 시간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흔히들 개미 췌바퀴 돌듯 몇바퀴 돌다보니 빨리 지나가 버렸다고들 입을 모아 합니다.

변천하는 사회에 발 맞추어 뛰느라 땀시도 숨 가쁘던 지난날들을 돌이켜 보면 휴!.....내 쉬면서 가만히 쉬고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 우리의 생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구도 많이 늘어서 그 많은 회원들의 앞뒤 치닥거리, 회원전체의 지위향상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가는... 나열하려니 너무 많이 쏟아져 나올 것 같군요.

우선 등분서주 많은 일들을 찾고 해결하기 위해 일하는 우리 협회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 항상 바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의논의 대상이 되고 호소할 상대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그래서 나는 지금도 “협회에 바란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얘기를 다 들어 해결해 준다는 것은 그 많은 회원을 가진 협회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둘째 문제라 돌릴지라도 귀는 항상 기울여 줘야겠습니다. 어떻게 남들과 어울려 보람찬 날들을 보내는지..... 또는 환자결에서 얼마만큼의 도움을 주며 만족해 하고 있는지 보다 속속들이 파고들어 관심을 주었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 바람직한 간호원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회원 각자 노력 여하에 있다고는 생각되나 간호학의 필요성이나 발전에 대한 전체 사회 인식도를 높이는 데에도 많은 관심을 두어야겠습니다. 더구나 돌아오는 해는 용이 하늘 높이서 무서운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고 있는 듯해서 어쩔지 흐트러진 자세가 용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주어진 여건 속에서도 보다 나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찾아내며 용의 눈이 무서워 보이지 않는 여유있는 자세로 있도록 모두 분발해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묵은 해를 보내면서 우선 용꿈 꾸어야겠지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꿈 꾸세요!